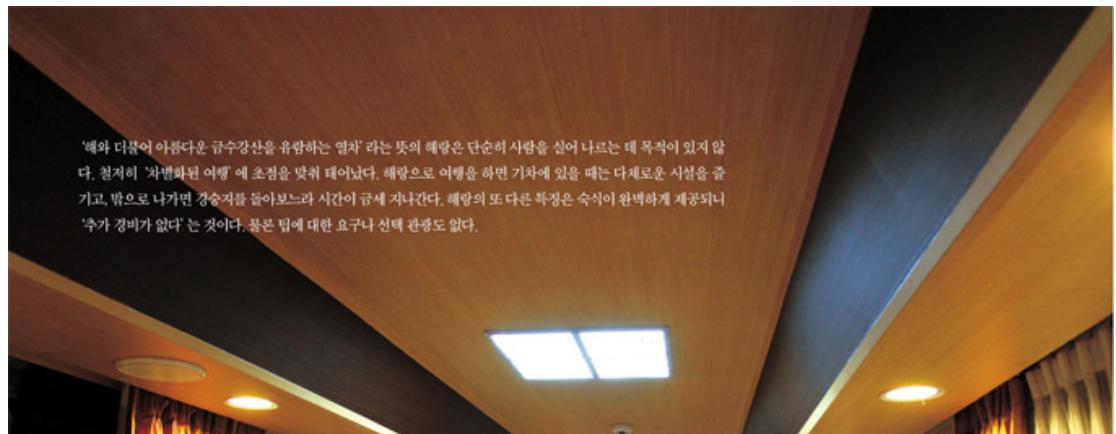


YONHAP | 연합르페르  
**REPÈRE** 목차 과월호 정기구독신청 사진구입

‘철도 위의 크루즈’  
해랑 타고 금수강산 유람

서울 미술학 가치·풀썩인한 가치

트디어 국내에도 ‘호화 열차’라고 부를 만한 작품이 탄생했다. 고래일이 지난해 11월부터 운행한 철대 열차 ‘해랑’이다. 해랑은 기차 여행의 낭만과 고급 호텔의 편안함, 전국을 돌아보는 뿐듯함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국내 출입의 여행 상품이다. 바다가 떠라보이는 전망 좋은 객실을 비롯해 다양한 관의시설을 갖춘 크루즈와 비슷한 만큼 대부분 기차 구간에 걸친 꾸며진 해랑은 여유와 풍격을 결비한 여행을 보장한다.





계속 얼굴을 맞대는 승무원과 승객 사이에 유대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기차 여행의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열차가 서울역의 플랫폼을 벗어나면 승무원이 먼저 승객에게 다가간다. 그들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아카펠라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한다. 해방의 승무원들은 여행자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새로이 알게 되는 것도 많다고 했다.

**국내여행도 비싸고 느릴 수 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침대 열차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국내에

상을 초월한다. 단적인 예가 도쿄 우에노(上野) 역과 홋카이도 삿포로 역을 왕복하는 ‘침대 특급’ 카시오페이이다. 오후 7시에 도쿄를 빠져

도 그런 기차가 있느냐, 며 의아해 하다가 결국 가격에 대한 호기심을 숨기지 못한다. 그리고 '해랑'의 상품 가격을 점한 뒤에는 터무니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실제로 해랑은 결코 싸지 않다. 1박 2일 일정의 가장 저렴한 상품도 1인 요금이 50만 원을 넘는다. 작년에 몇몇 여행사에서 '국내여행의 고급화'를 기치로 출시했던 전국 일주 상품과 비교해도 훨씬 비싸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는 '국내여행은 언제든 쉽게 갈 수 있고,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빨리 다녀오는 것이 최고'라는 편견이 깔려 있다. 많은 이들이 자동차를 물고 편집방에서 부숙하며, 값싼 음식만 골라 먹는 방식의 구두쇠 여행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해외로 나서면 심심한 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용인하면서도, 국내여행이 비쌀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끊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하지만 해랑의 상품 구성을 보면, 이내 놀랄 만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게 된다.

외국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블루 트레인이나 유럽의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일본의 카시오페이아 같은 특급 열차가 있다. 이 기차들은 이미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서 명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운임은 상

나가 다음날 오전 11시에 삿포로에 닿는 이 열차의 가장 저렴한 요금은 2만5천270엔, 한화로 약 39만2천 원이다. 식사는 제외돼 있고, 관광 일정도 전무하다. 반면 해랑은 '운송'이 아니라 '관광'이 목적인 열차다. 따라서 탑승 금액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침대 객실은 물론 식사 4끼와 3~4곳의 짧은 여행이 모두 포함돼 있다.

1주일에 2차례씩 운행되는 해랑의 정원은 54명이다. 1년 동안 해랑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기껏해야 5천 명 남짓이다. 해랑이 10년간 현재와 같은 간격으로 관광객을 태운다 해도, 이 열차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0.1%인 5만 명 내외에 불과하다. 소수를 거느려 만들어진 '명품 여행'인 셈이다.

**가족처럼 편안한 기차 여행** 해랑 여행의 집합 장소는 서울역 3층 코레일 맴버십 라운지이다. 활기차고 다소 소란스러운 대합실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받으며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한가롭게 신문과 잡지를 보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출발 시각 15분 전이 되면 4261 새마을호, 해랑의 탑승이 시작된다. 열차 외관에는 쭉빛 바탕에 황금색으로 선명하게 이름과 로고가 새겨져

REPERÈ FEBRUARY 2009 165



해랑의 일정을 살펴보면, 여행자보다 기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하루만 지나면 여행자는 기차를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숙해진다. 객실에서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경경을 감상하며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커피와 라운지에서는 대화를 앞에 놓고 담소를 나눈다. 화창한 날도 좋지만, 비나 눈이 내리면 실내 분위기가 더욱 길미로워진다. 전등을 다 끄고 밤하늘 아래 능선이 부드러운 낮도와 산허리를 바라보는 것도 인상적이다. 달컹거리는 기차에서의 잠자리는 다소 불편할 듯하지만 외의로 잠이 잘 온다. 평소에는 해볼 수 없는 체험기에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있다. 상서로움을 의미하는 상상 속의 새인 봉황을 상징화한 로고는 승무원의 복장과 객실 카드 키에도 들어가 있다. 다른 기차와는 품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듯하다.

기차에 오르면 우선 방 배정을 받는다. 모두 8량으로 이루어진 해랑에서 객실 23개는 1~3호차와 6~8호차에 있는데, 1량에 스위트룸은 3개, 디럭스룸과 패밀리룸은 4개가 들어서 있다. 넓찍한 스위트룸에는 더블 침대와 소파, 냉장고, 26인치 TV, DVD 플레이어 등이 갖춰져 있다. 면적이 같은 디럭스룸과 패밀리룸의 차이는 침대이다. 디럭스룸은 더블 침대, 가족을 위한 패밀리룸은 2층 침대가 마련돼 있다. 모든 객실에는 비데가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떨려 있으며, 승무원과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 가습기도 비치돼 있다.

해랑의 4호차와 5호차는 각각 카페와 라운지이다. 두 차량 모두 창문이 커서 바깥 풍경이 그대로 비친다. 카페 '선라이즈(Sunrise)'에서는 주스와 탄산음료, 우유가 무료로 제공되며 원할 때마다 호두과자, 나초, 초콜릿, 견과류, 과일, 치즈 등을 먹을 수 있다. 저녁에는 맥주와 와인, 칵테일 등 주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 2박 3일 일정의 경우, 첫날 서울에서 내려갈 때 도시락을 먹는 곳 또한 카페이다. 밥과 국, 불고기와 전, 나물과 밀반찬, 과일과 샐러드가 정성껏 차려진 도시락은 첫 식사로 손색이 없다.

라운지 열차는 해랑의 커다란 놀이방이자 거실이다. 벽을 따라 평행으로 소파가 설치돼 있는 이곳에는 DVD 플레이어가 장착된 대형 TV, 노래방 시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노트북 컴퓨-





터, 루미큐브와 장기 등의 보드 게임, 다채로운 서적 등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승무원들의 환

영화와 노래 공연도 라운지에서 열린다.

내부 시설도 뛰어나지만, 해랑에만 배속되는 승무원의 친절한 서비스 역시 여행이 즐거운 이유이다. 승무원의 임무는 24시간 대기하면서 청결을 유지하고 승객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주며, 외부 여행 시에는 가이드로서 동행하는 것이다. KTX 승무원들 가운데 심사를 통해 선발된 이들은 해랑에 타기 위해 호텔에서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몸에 익히고 응급 처치를 배웠다. KTX에서는 승무원과 승객의 관계가 다분히 사무적이고 딱딱 할 수밖에 없지만, 해랑에서는 가족처럼 살갑다. 처음에는 서먹하지만, 나중에는 헤어지기 섭섭해질 만큼 친해진다.

열차의 이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그중 2박 3일은 전국 일주, 1박 2일은 동부와 서부 권역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랑은 최초의 '레일 크루즈'답게 여행도 안락함과 알찬 내용을 추구한다. 기차역에서 목적지까지는 리무진 버스로 이동하며, 여행지에서는 문화 해설사가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설명해준다.

해랑을 운영하는 코레인에서는 이미 많은 지역이 소개돼 새로운 명소를 개발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을 중점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순천에 위치한 토부 다원이 그러하다. 1박 2일의 '씨밀레' 노선을 선택하면 틀르게 되는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녹차밭으로 차가 매우 맛있기로 소문나 있다. 또한 계절의 특성을 반영해 봄에는 꽃이 만발한 지역을 방문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화려한 곳을 넣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랑을 이용한 사람은 노부부와 가족 여행객이 주를 이뤘다.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많이 걷지 않아서 체력이 약한 사람도 쉽게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랑은 해외여행이 비거운, 한국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



객실에 부속된 화장실과 샤워실은 실속 있게 꾸며져 있다. 전기온수기와 헤어드라이어, 크고 작은 수건, 샤워 용품이 고루 갖춰져 있어서 일본의 비즈니스호텔을 연상시킨다. 사실 해랑의 객실은 다른 나라의 침대 열차에 비하면 전혀 비좁지 않다. 침대 외에 별도의 탁자와 의자, 미니 냉장고가 있는 스위트룸은 매우 넓은 편이다.





## Information

여행 일정 해랑의 일정은 크게 1박 2일과 2박 3일로 나뉜다. 토요일에 출발하는 1박 2일은 '해오름'과 '씨밀레', 화요일에 운행되는 2박 3일은 '아우라'와 '천누리'로 세분돼 모두 4가지 코스이다. 2월부터는 여행 첫날 수원역 정차 일정이 추가되며, 씨밀레의 경우 남원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도 수원역에 잠시 선다.

### 해랑 요금(1인)

	1박 2일	2박 3일
디럭스룸(2인 1실)	640,000	975,000
스위트룸(2인 1실)	770,000	1,160,000
페밀리룸(3인 1실)	517,000	797,000

- 케미스룸은 최대 4명이 투숙할 수 있으며, 추가 1명의 요금은 1박 2일이 10만 원, 2박 3일이 30만 원이다.

- 코리안은 2박 2일정까지 1명과 2명에 결혼가족과, 성인 등을 맞이한 사람에게 혼인료의 20~25%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 해랑 여행 루트



168 FEBRUARY 2009 REPÈRE

### 아우라

일자	도착 시간	출발 시간	지역	일정
1	15:00	21:30	서울역	출발
2	07:00	15:00	목포역	유람선 탑승, 유달산 아강 감상
	18:00	21:30	마산역	한려수도, 통영 수산시장 관광
	06:30	11:05	경주역	경주 시내 문화재 관광
3	12:20	14:00	추암/동해역	추암 일출 감상, 온천육, 무릉계곡 자유 관광
		19:00	문곡/태백역	추전역 자유 시간
			서울역	도착

### 천누리

일자	도착 시간	출발 시간	지역	일정
1	10:30	21:30	서울역	출발
	14:40	21:30	장성/광주역	소제원, 기사 문학관 관광
2	07:00	14:00	부산역	동백섬, 이구아리움, 해운대 관광
	15:30	21:30	경주역	신라 밀레니엄 파크 관광
	06:30	11:05	추암/동해역	추암 일출 감상, 온천육, 무릉계곡 자유 관광
	12:20	14:00	문곡/태백역	추전역 자유 시간
		19:00	서울역	도착

### 해오름

일자	도착 시간	출발 시간	지역	일정
1	09:05	21:30	서울역	출발
	11:40	13:50	직지사역	직지사 관광
		21:30	경주역	신라 밀레니엄 파크 관광
2	06:30	11:05	추암/동해역	추암 일출 감상, 온천육, 무릉계곡 자유 관광
	12:20	14:00	문곡/태백역	추전역 자유 시간
		19:00	서울역	도착

### 씨밀레

일자	도착 시간	출발 시간	지역	일정
1	09:05	21:30	서울역	출발
	11:30	15:10	강경/익산역	보석 박물관 관광
		21:30	목포역	유람선 탑승, 유달산 아강 감상
2	07:00	11:00	순천역	담양 녹차밭, 순천 낙안읍성 관광
	12:00	15:00	남원역	춘향 테마파크, 광한루 관광
		19:00	서울역	도착

### 해랑이 들르는 명소



태백 추전역 태백산 눈꽃얼치가 지나는 약으로 국내 기차역 중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855m이다. '추전'이라는 명칭은 '씨리나무 밭'에서 왔다. 과거에는 주위에 화전민이 거주하는 자연부락이 있었으나, 현재 마을은 사리지고 썬리나무만이 남아 있다. 10여 년 전부터 여객 업무를 중지했으나 추운 날씨와 새하얀 눈으로 다시 명성을 얻었다. 여름에도 난로에 불을 지피고, 기울이면 적설량이 1m에 달한다.

광주 부체박물관 지난해 4월에 개장한 운집제 내부에 위치한 박물관이다. 동양과 서양에서 관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던 부채의 역사와 부채를 만드는 법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박물관에는 현대 부채관, 전통 부채관, 춘향 부채관 3개 전시실이 있다. 이곳에서는 해랑 탑승자를 위해 대금 연주도 들려준다.

김천 직지사 경상북도 황악산에 자리한 사찰로 25개 본산(本山) 가운데 하나이다. 구

### 해랑의 음식

해랑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음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각 지역의 토속적인 별미를 중심으로 친절도와 분위기까지 고려해 엔산된 식당을 이용한다.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해랑을 다시 타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코레일 홈페이지에는 해랑 여행 도중 들르는 식당과 메뉴가 나와 있다.

부산 복국 해운대에 자리 잡은 금수복국은 1970년 개업한 이래 복요리인 전문점으로 관매했다. 서울 압구정동과 대치동에도 체인점이 있지만, 아무리도 본점에서 먹어야 제 맛이다. 미식가들로부터 최고의 음식으로 알려진 복국을 넣고 끓인 금수복국은 식초와 파 양념, 초장 등을 넣어 더욱 맛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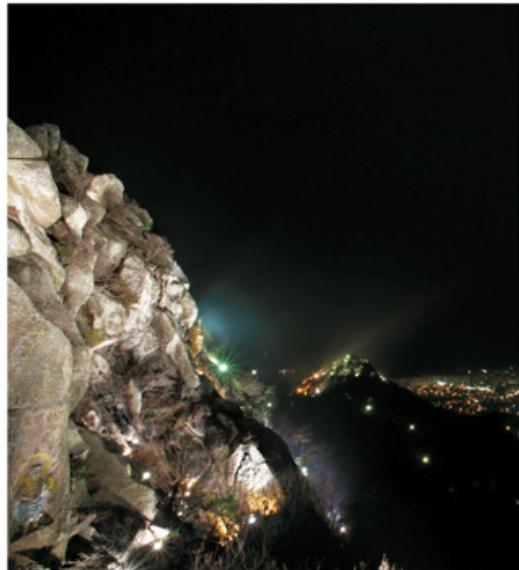
광주 남도 한정식 음식 맛이 좋기로 유명한 광주에서는 맛있는 한정식 식당 10곳을 선정해 1등 맛집으로 부르고 있다. 해랑에서는 그중 하나인 예지원에 들르는데, 실내는 고풍스러운 가구와 미술품이 전시돼 아늑하고 음식은 전통과 현대의 맛이 어우러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식사 대자리가 대형 산란 미드 아메리드 브리크로 주제는 피너스 브리크로 봄이나



미의 도리사와 함께 418년에 창간됐으나, 임진왜란 당시 화재로 소실돼 광해군 2년인 1610년에 복원됐다. 경내의 문화재 중 석조약사여래좌상, 대웅전 앞 3층 석탑, 비로전 앞 9층 석탑, 삼존불탱화 등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동해 추암해수욕장 추암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이름난 일출 명소이다. 해랑은 일출 시각에 맞춰 추암역에 도착한다. 백사장은 길지 않지만, 해안 절벽과 기암괴석이 이루는 풍광이 환상적이다. 작은 어촌의 한적함과 진진한 파도 소리가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목포 유달산** ‘호남의 개골’ 이라는 별칭과는 달리 높이가 228m인 낮은 산이다. 하지만 사방이 모두 평지어서 우뚝 솟아 보인다. 등산로가 험하지 않아서 밤에도 손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다. 구시기의 낮은 기록과 허당 신도시, 항구와 목포 해양대학교가 빛어내는 아경이 아름답다. 불이 오면 꽃이 피어 더욱 예쁘다.



통영 굴정식 통영과 남해는 국내에서  
굴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통영에 굴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은 의외로 많지 않다. 해장의  
‘아우라’에서는 굴을 재료로 구이, 뷔  
김, 전, 보쌈 등을 선보이는 항로집을  
방문한다. 굴과 새우, 미더덕, 콩나물  
을 넣은 짬과 굴밥도 일품이다.

남원 추어탕 미꾸라지를 넣고 끓인  
국인 추어탕은 남원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최근 건물을 개축한 새집추어탕은 미꾸라지에 시래기,  
두부, 계란, 버섯, 파, 들깨, 고추장을 더한 탕과 8가지 반찬을 낸다. 껏잎으로 미꾸라지를  
말아 뛰긴 요리와 숙회도 인기가 높다.

순천 갈낙전 갈낙전은 갈비와 낙지, 전복을 주재료로 하는 전골 요리다. 순천의 것마을 네고향 기든에서는 물에 좋은 세 가지 재료에 미나리와 팽이버섯, 대파 등을 함께 넣는다. 갈비는  
한우, 낙지와 전복은 남해안에서 집은 것을 쓴다.

태백 한우 강원도 태백과 횡성, 평창은 모두 한우를 유통  
으로 내세우는 고장이다. 태백에는 1900년대부터 한우마을,  
태성설비 등의 소고기 전문점이 탄생했다. 태백의 한우는 청정 지역에서 자라 품질이 좋으며, 연반불에 고기  
를 구워 풍미가 독특하다.



REPÈRE FEBRUARY 2009 169

▲ top